

“甲의 횡포에...” 광주 편의점주들 ‘눈물 장사’

포화상태 경쟁·불공정 계약 이종고 시달려

중기중앙회 설문... 54% “상품 강매 등 경험”

‘갑(甲)의 횡포 논란’ 속에 을 들어 서만 편의점 운영주 4명이 자살한 가운데 광주 편의점 업주들도 포화상태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가맹본부와의 불공정 거래 계약이라는 이종고에 여전히 울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영점을 제외한 전국 편의점 3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7~23일까지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행위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따르면 편의점주의 절반 이상(54%)이 가맹사업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답한 가맹본부의 주요 행위는 ‘필요 이상의 상품구매와 판매목표 강제’, ‘부당한 24시간 영업시간 강요’, ‘부당한 상품공급·영업지원 중단’, ‘근접출점 등 영업지역 미보호’,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거부’ 등이었다.

그러나 호황을 맞은 편의점 업체는 약진을 계속하고 있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편의점 업계가 편의점간 과당경쟁과 점주와의 ‘노예계약’을 바탕으로 배 배리기를 하고 있다는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1200여개의 편의점이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어 경쟁하고 있는 광주 지역의 경우 더욱 치열한 상황이다.

광주 지역에 문을 연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주요 업체의 점포수는 5월 말 현재 1176곳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군소 편의점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또 올해 들어 새로 200여곳이 늘었고, 후발업체인 홈플러스 등도 점포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 경쟁은 심화할 전망이다.

광주시 북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사가 반경 80m내에 같은 브랜드 편의점 들어서는 안 된다고 약속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제한이 없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는 대형마트까지 인근에 들어서면 편의점 운영주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며 “수천만원대인 엄청난 해지위약금 때문에 점포 문도 닫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시간 영업계약도 편의점주들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는 점주의 경우 건강이 안 좋거나 집안 사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발생, 24시간 영업을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본사는 ‘계약 위반’이라며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8년째 편의점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불리한 계약조건을 악용해 여전히 갑의 횡포를 부리는 본사와 많다”며 “정당한 조건에서 점주와 본사 모두 상생

할 수 있는 건전한 상거래 원칙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의점주들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처리에 희망을 걸고 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상정한 이 법안은 ‘현대판 지주·소자제’로 비유되는 편의점 점주와 본사와의 관계에서 점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정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편의점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순천 오천지구 호반베르디움 7일 분양

호반건설(대표이사 최종만)이 순천시 오천지구 A-1블록에 호반베르디움(이하 ‘오천 에코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을 오는 7일 견본주택 개관과 함께 분양한다.

오천 에코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은 지하 1층~지상 20층(12~20층) 11개동 595가구(84A 486가구, 84B 109가구)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됐다.

청약은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2순위, 14일 3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고 계약기간은 25~27일이다.

입주 예정일은 2015년 6월이며 견본주택은 순천역 인근 이마트 순천점 옆에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신도시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오천지구 첫 분양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인접한 국제정원박람회장의 세계 정원들과 저류지 공원 등의 뛰어난 자연 환경, 우수한 교육여건 및 편리한 생활권의 시설 이용 등 장점이 많아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의 (061-741-0200). /동부채무본부=김은중기자 ejkim@

“수입 오리건주 밀서 GMO 검출 안돼”

식약처, 유전자 검사 계속

국내 수입된 미국 오리건주 밀과 밀가루에 대한 1차 검사에서 유전자 변형(GMO) 밀이 나오지 않아 보건당국이 추가 검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승인 GMO 밀이 발견된 오리건주로부터 국내 수입된 밀과 밀가루에 대한 1차 검사를 한 결과 GMO 유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식약처는

오리건주에서 밀 또는 밀가루를 수입한 제분업체와 식품수입업체 총 9곳에서 검사 시료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검사 시료를 돌려 유전자 검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1차 검사에서 변형 유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며 “GMO가 검출되면 즉시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방CT·광기술 융복합구축 협약식. 한국광산업협회와 (사)국방정보통신협회는 3일 조용진 한국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양태수 국방정보통신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광산업협회 사무국에서 ‘국방CT·광기술의 융·복합체계구축을 위한 협약’을 갖고, 국방 분야 LED 조명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광산업협회 제공>

기아차, 뉴 쏘렌토·뉴 K5 잇단 출시

기아자동차가 품질을 높인 ‘2014 뉴 쏘렌토R’과 디자인을 부분 변경한 ‘뉴 K5’를 잇따라 출시하며 하반기 자동차 시장 선점에 나섰다.

기아차는 3일 내외장 고급 사양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가격을 내린 ‘2014 뉴 쏘렌토R’을 이날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

새 쏘렌토R은 LED 리어컴비네이션 램프와 LED 아웃사이드 미러, 루프랙, 인조가족 시트, 독립제어 풀오토 에어컨,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좌외선 차단 글라스 등을 기본사양으로 장착해 기존 모델보다 품질에 우위를 뒀다.

오는 13일 출시될 K5의페이

스리프트 모델 ‘더 뉴(The New) K5’는 12일까지 사전계약에 들어간다.

신차는 국산 중형차 최초로 LED 포그램프를 적용하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및 라디에이터 그릴과 넓어진 프런트 범퍼 등 환층 세련된 디자인을 갖췄다. 실내도 블랙 하이그로스 센터페시아와 조차 편의의 향상시킨 스티어링 휠 등, 기존 모델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새로 출시되는 두 차종은 편의사양과 디자인 등을 업그레이드했지만 가격을 인하 또는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 1% 그쳐

13년 8개월만에 최저... 광주는 보험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둔화했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반적인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과 석유류 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진 것이 물가 상승 둔화의 주요 원인이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상승했다. 1999년 9월(0.8%)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1.3%, 전월보다는 0.3% 올랐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2% 오르는데 그쳐 199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보다는 0.4%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1.9% 내렸고 전월보다는 3.6% 하락했다.

이 가운데 체감물가 상승을 주도한 신선채소는 작년 동월보다 0.1%, 신

선과실은 4.4% 내리 하락세를 이끌었다.

한편 지속적으로 오르던 광주지역 물가가 4월에 소폭 내린 데 이어 5월 들어 보험세를 유지했다. 광주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2010년=100)로 전달과 같았고, 전년 같은 달보다는 0.8%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05.8로 전달보다 0.4% 하락, 전년 같은 달과 0.0% 보합을 기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세계 최대 반잠수 시추선 착공

현대삼호중공업 강재 절단식

현대삼호중공업이 세계 최대급 반잠수식 시추선(Semi-Submersible Drilling Rig) 건조에 들어갔다.

현대삼호중공업은 3일 발주사인 노르웨이 씨드릴(SEADRILL)사의 프로젝트 감독인 피터 레너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잠수식 시추선 건조의 첫 공인 강재 절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5억6000만 달러에 수주한 이 시추선은 길이 123m, 폭 78m의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노르웨이 해양산업 표준’(NORSOK)에 따라 건조된다. 2014년 4분기에 인도돼 북해에서 운영될 이 시추선은 수심 80~3000m의 해상 작업이 가능하며 해수면에서 최대 12.2km까지 시추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조선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산업에 강화해 왔다”며 “철저한 준비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기술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반잠수식 시추선 조감도>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477 전남 순천시향곡1리 차재성1가길 101(730-8945) 전화: 1588-8499 팩스: 1588-8499
 417 전남 순천시향곡1리 차재성2가길 101(730-8946) 전화: 1588-8499 팩스: 1588-8499
 414 전남 순천시향곡1리 차재성3가길 101(730-8947) 전화: 1588-8499 팩스: 1588-8499

세가지점

- 광주점: 062-225-5110
- 문의전화: 062-225-5110
- 문의전화: 062-225-5110
- 문의전화: 062-225-5110
- 문의전화: 062-225-5110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